

## 르브론 제임스, NBA 첫 4만 득점 '새 역사'

르브론 제임스(40·LA 레이커스)가 미국 프로농구(NBA) 최초로 통산 4만 득점을 기록했다.

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제임스는 전날 덴버와의 경기 2쿼터 시작 1분 21초에 골밑 레이업슛을 성공시키며 통산 4만 점을 달성했다. 제임스는 이날 경기 전까지 4만 점에 9점을 남겨 놓고 있었다.

제임스의 기록 달성 후 작전타임이 불리자 관중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경기장에는 제임스의 기념 영상이 나왔다.

전인미답의 4만 득점 고지를 밟은 제임스는 "유서 깊은 NBA에서 무언가를 최초로 이룬 선수가 된다는 건 꽤 멋진 일이다. 최고의 선수들이 오



▲ 정규리그 통산 4만 득점을 달성한 르브론 제임스가 손으로 4만을 표현하고 있다. 사진=instagram

는 리그에서 함께 경쟁하는 건 참 좋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승리다. 진 경기에서 기록이 나온 건 정말 싫다"고 했다. 이날 레이커스는 덴버에 114-124로 패했다.

지난해 2월 8일 카림 압둘자바(77)의 통산 득점(3만8387점)을 넘고 39년 만에 NBA 통산 최다득점의 새 주인이 된 제임스는 불혹의 나이인 올 시즌에도 경기당 평균 25점을 넣고 있다.

2002~2003시즌 평균 10.8점을 기록한 존 스톡턴(62)을 끝으로 마흔이 넘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선수는 제임스뿐이다. 한 시즌 평균 30득점을 넘긴 최연소(22세)-최고령(38세) 기록도 모두 제임스가 가지고 있다.

## MLB닷컴, 박찬호 등 한국인 스타 6명 소개



▲ 1호 메이저리거 박찬호가 LA 다저스 입단식에서 유니폼을 들고 기념하고 있다. 사진=MLB.COM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사상 최초 정규시즌 개막 경기를 앞두고 한국인 메이저리거 중 선구자 격인 선수와 현역 선수 등 6명을 소개했다.

6일 MLB닷컴은 "다저스와 파드리스가 오는 20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정규시즌 개막전을 치르면 박리 그 역사가 새로 쓰인다.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인 야구

팬층과 문화의 본고장 중 하나인 한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정규리그가 개최되기 때문이다."라며 '코리아 특급' 박찬호, '빅초이' 최희섭, '핵잠수함' 김병현과 '추추트레인' 추신수(SSG), 태극마크를 단 미국인 토미 현수 에드먼(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바람의 손자'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등 메이저리그 한국인 선구자(개척자) 6명(Six Korean MLB trailblazers)이 남긴 기록을 소개했다.

박찬호는 처음으로 빅리그의 문턱을 넘은 한국인 투수로 17시즌 동안 124승을 거뒀다. 최희섭은 첫 한국인 MLB 타자로 통산 40홈런을 기록했고, 김병현은 한국인 최초로 월드시리즈 정상에 섰다. 추신수는 한국인 처음으로 올스타에 선발된 타자로, 에드먼은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을 통해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단 선수로 각각 소개했다. 이정후는 '한국 출신으로 MLB에서 최대 규모 계약을 체결한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 시리즈는 오는 20일과 21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가 고척스카이돔에서 개막 맞대결을 펼친다.

## LIV골프 "세계 랭킹 포인트 포기할 것"



▲ LIV CEO 그레그 노먼. 사진=palmbeachpost.com

LIV골프가 세계 랭킹 포인트를 부여 받는 작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6일 '골프다이제스트'에 따르면 LIV CEO인 그레그 노먼(69·호주)은 이날 "앞으로 세계골프프랭킹위원회(OWGR)에 랭킹 포인트를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주도하는 LIV는 2022년 6월 출범 이후 줄곧 투어 성적을 세계랭킹 포인트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OWGR은 지난해 10월, 경기 운영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공식적으로 거절했다. 세계랭킹 포인트를 받지 못하면 세계 랭킹을 기준으로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 메이저대회와 올림픽 출전 기회가 좁아진다.

PGA투어를 떠날 때만 해도 세계 랭킹 상위권이 즐비했던 LIV 선수들은 현재 50위 안에 4명, 100위 안에 8명이 있다. 이 숫자도 줄고 있다. 일부 LIV 선수들은 DP월드투어와 아시아 투어가 개최하는 대회에 출전해 세계 랭킹을 끌어올리는 우회전략을 쓰고 있다. 올해만 LIV골프에서 2승을 기록 중인 니먼(칠레)은 마스터스에 이어 PGA챔피언십에 초청 받았다. 필 미컬슨이나 더스틴 존슨(이상 미국), 존 람(스페인) 등 메이저 대회 우승자는 이미 출전 자격을 갖추고 있다.

오는 4월 열리는 시즌 첫 번째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에는 LIV 소속 선수 13명이 출전한다.

#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 Home Remodeling